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1. 전주 동향

음식료

7월 넷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1.4% 상승. 원/달러 환율은 1,118.1원으로 하락. 곡물가는 옥수수(+1.9% WoW), 소맥(+2.8% WoW), 대두(+2.4% WoW), 원당(-2.2% WoW) 기록. 옥수수는 USDA의 전주 미국 옥수수 수출 물량이 5,170만 부셀로 발표되며 시장 예상범위 3,700-5,500만 부셀의 상단에 위치해 미국산 옥수수 수출 수요의 견고함을 입증함. 동시에 7/25일 정부의 농가 지원책 발표도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 소맥은 EU,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재배 지역에 폭염 및 폭우가 속출. EU 곡물 모니터링 서비스 MARS, 러시아 농산물시장 연구소 SovEcon 등을 비롯한 다수의 곡물 컨설턴트들의 소맥 생산량 감소 전망이 소맥 가격 강세를 이끌. 대두는 7/25일 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피해를 본 농축산가에 12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책을 발표. 이후 7/26일 EU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동의를 얻어내며 대두 가격 전주 대비 2.4% 상승. 원당은 주초 브라질 원당 생산량 감소 우려로 소폭 가격 상승했으나 주 후반 인도 원당 초과 생산분의 시장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며 원당 가격 전주 대비 하락.

중국 라이신 공장 재고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수출 소폭 증가해 가격 단기간 반등 예상되나 제조업체의 가격 인상 기반은 약한 상황. 아지노모토 Thailand 장기 경쟁으로 2019년 9월 라이신 생산 중단 결정. OEM 제품 생산은 유지. 메타오닌은 최근 가격 반등 이후 가격 유지. 위안화 약세가 수출에 유리한 상황. Ningxia Ziguang 7월 중순에 15일간 유지 보수 계획. CJ 말레이시아 메타오닌 공장 7월 초 ~ 8월 중순 동안 유지 보수 계획으로 공급과잉인 중국 국내 메타오닌 공급 완화되며 시장 안정 전망. 쓰레오닌은 중국 제조업체의 생산 감축으로 재고 압력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단기간 약세 지속. Ningxia Yipin 은 생산 재개. 트립토판은 생산 감축으로 인한 제한된 재고와 중국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 향상으로 가격 단기간 점진적 상승 예상.

국내 이벤트는 1. 유제품, 9월부터 원유 수매가격 작년 대비 4월 인상해 1L당 926원으로 최종 확정. 유업계 원유 가격 1L당 50원 이상 인상 방안 검토 중. 2. 신세계푸드, 노르웨이 수산기업 리로이(LEROY)와 공동 개발한 '보노보노 마리네이드 연어스테이크' 4종 출시해 수산물 HMR 시장 공략. '23년까지 1,000억원 매출 목표 3. 선진, 8/7일 3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계획. 공모 시장에서의 첫 회사채 발행 4. 맥주세, 기획재정부 이달 말 발표할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맥주 종량세 전환 방안 제외.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유보 5. 유제품, 폭염으로 인해 7월 초부터 전국 원유 생산량이 평년 같은 기간 대비 10% 감소. 평년 7-8월 대비 20%까지 감소 가능 6. 선진, 보험동업회사법인 주식 9만 291주(328억) 취득 결정

2. 금주 전망

음식료: 의견 Overweight, 하반기 전망 HMR, 해외틴아라운드 오리온, 롯데푸드, 매일유업 선호 CJ제일제당, 동원F&B 하반기 턴어라운드 전망

오리온 5월~6월 고복합 매출액 본격 반등 및 개선된 수익성 효과 지속될 전망. TT채널 대리점 일원화 작업 지속으로 하반기까지 500여명 추가 구조조정. 하반기 초코파이 가격인상, 견과류 신제품 매출은 추가 성장요인. 마진을 측면에서 서프라이즈는 지속가능성 있다고 판단. 롯데푸드 후레쉬델리카 독자 전환 지속으로 2분기 식품부문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 지속. 분유 수출은 4-6월 정상화 하반기는 공장 추가 인종으로 매출액 증가 예상. 국내 분유는 매출액 유지 지속. 육가공 부문은 1분기 가격인상 및 전년도 햄버거병 기저로 2분기 이후는 P, Q, C 성장 예상. 매일유업 분유 수출은 1분기 80억원 기록 이후 2분기 100~120억원 흐름 예상. 국내 분유 매출액 감소는 지속되고 있지만 백색시유, 상하목장, 커피몰로 등 주요 카테고리 매출 성장도 지속. 2분기는 1분기 대비 마케팅비 지출이 예상되지만 계절성을 반영한 지출이므로 yoy 큰 폭의 증가는 아니라고 판단. CJ제일제당 가공식품의 외형 성장 및 소재 식품의 수익성 개선 지속. 위안스 컴퍼니 인수 가능성은 가공식품 매출액 레벨업이 가능한 M&A로 긍정적인 이슈로 판단. 마니커 투자는 이지바이오와의 협업을 위한 140억원 보충금 성격의 투자로 사료부문의 투자 확대로 판단하지는 않음. 해외바이오 부문은 스낵 가격 하락이 우려스럽지만 가격 하락이 후 바닥 시그널(가동률 하락, 2-3분기 수요 회복 등) 발생하는 상황. 아미노산 가격 반등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동원F&B 1분기 원가 부담에 따른 부진 이후 매출액 성장은 지속. 하반기 참치어가, 치즈원가 전년대비 하락 전환으로 원가 개선 기대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관심종목

오리온 (071560)

18. 4-5월 기준 2분기 가이던스 매출액 4,500억원, 영업이익 500억원은 신제품 성과 및 6월 실적에 따라 상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중국 고복합은 5월 부터 입점 매출 발생, 6월 본격화 예상. 고복합 5월 매출액은 25~30억원 수준 5월 초 상해 출시, 5월 말 북경 출시. 딸기 초코파이 20~30억원 매출, 혼다 칩 18억원 매출 등 신제품 매출 기여는 점진적으로 확대. 예상비용 집행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상황으로 과도한 비용 집행 우려는 여전히 적음. MT 경소상 400개, TT 경소상 400개 감축으로 경소상 사이즈 1,000개 수준으로 감소. TT채널의 대리점 일원화 작업도 지속. 한국/베트남 매출액 호조. 국내는 18.7월 그레놀라 출시, 농협과 JV로 연간 200억원 기대. 올해는 반기 매출로 100억원 예상.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연말에 출시가능. 연간 70~80억원 매출액 전망. 베트남은 7~8% 매출 성장 지속 중이며 내수 시장에서는 스낵/파이류 카테고리 성장 주도. 하반기 쌀과자 신제품, 19년 양산형 출시 계획. 러시아는 약성 딜러 교체 2분기 이어지지만 상반기에 대부분 마무리되며 하반기 다시 적거래 딜러 늘려 전사에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선진 (136490)

제2 GGP가동에 따른 비육돈 확대는 20년 상반기 마무리. 비육돈 규모는 동기간 계열화 비육돈 기준 기준 50만두에서 최대 80만두로 확대. 양돈 사업에서 랜드레이스, 오크서 기준 제1GGP 550두 규모, 제2GGP 350두 규모. GGP 모돈은 550두에서 900두로 63.6% 증가 효과. 증가된 GGP 모돈으로 비육돈 생산 확대는 18년 하반기부터 반영. 마무리는 20년 상반기 예상. 동기간 계열화 비육돈 기준 기준 50만두에서 최대 80만두로 확대 전망. 비계열화 비육돈 기준 70만두에서 최대 110만두로 확대. 양돈 규모 증가, 사료 규모 증가 예상되는 가운데 영업이익 확대 여부는 돈가 레벨에 따라 결정될 전망. 돈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단기 위험 요인이나 시장 재편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인 기회 요인으로 판단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7월 30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7월 30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7월 30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